

“완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남 대표 랜드마크로”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세미나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 시설 구성도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건립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완도군은 지난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국내 박물관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했다.

국립해양박물관 백승욱 전문위원은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운영 방향과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글로벌한 안목의 소유자이며 세계적

반열의 인물로 그가 가진 소프트 파워적 리더십이 인심을 움직이게 했다”며 “박물관에 장보고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세계적인 해양 박물관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이형기 학예연구관은 국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수산 관련 문화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박물관학회 윤태석 이사의 ‘최근 박물관 동향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방향’,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 학예연구사의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시 콘텐츠’라는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운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장보고



완도 국립해양박물관 조감도

완도군 제공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시설 구성, 수산자원의 소비·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완도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완도가 해양수산물 대표도시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 전남도 등과 협력해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을 세우고 설립 타당성 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 선정, 2024년 3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구강보건 이동치과진료 운영 영암군, 40개 취약지역 중심

영암군은 구강 보건 이동 차량을 이용해 치과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3월 도포면을 시작으로 40개 취약지역을 선정, 순회진료를 통해 공공보건 치과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치과 전문인력이 구강 보건교육과 상담, 개인별 구강검진으로 충치·시린이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을 시행하고 구강 위생용품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평소 치아 관리가 어려워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예방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이동치과 진료를 통해 중증 구강질환 환자에게는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노후주택 집수리 신청자 모집 강진군, 최대 1000만원 지원

강진군은 강진읍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노후주택 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지역 내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와 주거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부의 외벽, 담장, 대문 등을 철거 또는 보수·교체할 수 있다.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까지 강진읍 노후주택 74호를 정비했으며 올해 16호를 추가로 모집한다.

위길복 강진군 건설과장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자격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건설과(061-430-3387)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운복 기자

완도군민 SNS 기자단 발대식

완도군은 제4기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우철 군수가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하고 군민 SNS 기자단의 출발을 응원했다.

제4기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에 선발된 기자단 29명은 20대~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사진작가,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오는 12월31일까지 △군정취재 △군 주요 행사, 축제 등 현장취재 △해양치유체험 등을 통해 군 관련 소식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완도의 소통 메신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4개 채널을 운영하며 군정 소식과 행사·축제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제전 및 전남장애인체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무안 일로움 새마을협의회, 봄맞이 환경정비

무안군 일로움 새마을협의회회원들이 월암리~용산리 백련건강생활도로 1.8km 구간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는 등 봄맞이 백련 무안군 제공

건강생활도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해남군, 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동결... 물가 안정화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요금 등 해남군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군 관리 공공요금 전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결 대상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요금이 해당된다.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 군

관리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요금은 전년 대비 수준으로 동결이 되며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해 11~12월 분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물품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해남사랑상품권 7~10% 할인판매, 취약계층 거

울철 난방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군민자치대학 7기 음식문화대학 교육생 모집”

강진군은 오는 24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음식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강진군민자치대학 ‘제7기 음식문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문화대학은 음식 플레이팅, 지역 특산물에 이용한 요리, 상차림 개선, 밑키트 만들기, 홍보리플릿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올해 교육은 3월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6회로 편성해 월 2회 격주로 진행한다. 7~8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2월

군민자치대학 통합 졸업식을 갖는다.

13회 이상 교육 참여시 푸드코디네이터 2급 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푸드코디네이터는 음식, 디자인, 비즈니스, 식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가다.

입학 희망 자는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mail(abc724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준범 문화관광실장은 “이번 음식문화대학은 시시각각 변하는 푸드 트렌드를 알 수 있으며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문화대학은 지난 2013년 강진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처음 개설됐다. 이후 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061-430-3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운복 기자

국가지점번호판 합동조사 무안군, 관내 245점 대상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를 위해 무안읍 병산, 정계면 승달산, 해제면 봉대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무안소방서, 한국국토정보공사무안지사와 합동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지점 번호는 건물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지역, 해안가 등에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를 뜻한다.

현재 승달산, 봉대산 등 무안군 주요 등산로와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해안가 주변에 254점 국가 지점 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군은 올해 12개 지점의 현장을 사전 답사해 위치를 선정 후 국가 지점 번호판을 설치하고 국가주요정보시스템과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물은 일제 조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실험실 화학물질 누출 예방활동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일부터 연말까지 광주·전남·제주 지역 169개 기관(실험실 3464곳)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실험실에서 폐시약 용기를 잘못 다뤄 화학물질이 누출, 연구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바 있다.

환경청은 실험실 내 화학물 낙하 등에 따른 화학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환경청은 3월 말까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화학물질 종류 △연간 취급량 △시약용 △폐시약 관리 등이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상담을 진행하고 대응 매뉴얼도 실험실에 배포한다.

정선화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실험실 화학사고 예방활동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